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래도록 향기 나는 봉사하도록



양주승
포천신문지문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연일연야 더욱 알찬 언론 만들기에 수고하는 김영복 편집국장 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여러분의 희생적인 노력의 댓가는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로 보답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시지만 희망과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직장으로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포천신문은 각 분야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젊은 사업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앞날이 총망미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것도 큰 관심을 보이는 섬세함의 주부명예기자단, 포천과 경기북부 전지역 읍지와 양지에 산재되어 있는 조사위원회 등 막강한 정보 조직력을 가졌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란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을 잡아 원대한

원을 만듭시다.

각 위원회간의 상호 교류는 물론 친목도모를 통하여 포천신문이 포천지역은 물론 경기북부지역의 정론지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포천신문 발행에 협력하는 각 위원회와 명예기자단은 正心誠意(마음은 바르게 뜻을 참되게 하여) 지역 정론지로 평가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포천신문 애독자님께서 오래 오래 간직하고픈 향기 나는 봉사를 합시다. 아울러 大器晚成입니다. 큰일이 나 큰 인물은 쉽게 이루지는 것이 아니라 각고 끝에 이루어 진다는 말을 늘 기억하십시오.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편안하심과 직장·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민과의 정론지 약속 지켜 나가길



유병호
포천신문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저함이 없는 신문으로 그동안 독자

신문은 지역사회 여론매체이며 사회의 목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천신문은 '현재 나 바르뉴스'를 전달하는데 조금도

의 약속을 충실히 지켜 지난 4년 동안 10일마다 한번씩 모두 144회 신문을 발행하여 포천시민들의 애정 어린 매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천신문 운영위원회는 포천신문을 바르게 운영하기 위해 3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포천신문 기구입니다. 운영위원회의 활동은 포천신문이 늘 바르고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포천신문이 최첨단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보다 더 다양한 뉴스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자

료제공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월1회 정기모임을 그동안 34차례나 개최해 위원들 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이거니와 포천신문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실시한 제1회 포천민속경기는 포천사회에 또다른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신문 운영위원회가 이 대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재창간 4주년을 맞아 30여명의 운영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바르고 정확하게 보도하여 포천시민은 물론 경기북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데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활력 이끌어내는 新聞 되길



김기호
포천신문주부명예
기자단 단장

북부지역의 시·군·면의 신뢰받는 생활의 각종 정보제공자로 동반자로,

또한 길잡이로 삶에 활력을 이끌어 내는 정말 좋은 신문만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포천신문 가족 여러분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로서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포천시 14개 읍·면·동에서 열심히 지역의 여러 가지 내용을 취재해 주시는 주부명예기자단 여러분의 이름으로 포천신문이 포천시 뿐 아니라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신문, 기다려지는 신문, 아끼고 사랑받는 신문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은 포천지

역에서 사회활동이나 학교 봉사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부명예기자단은 주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회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포천신문 지면에 보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보다 유익한 기사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전국적인 주부명예기자단이 탄생하는 그 날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재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료독자시대 1만명 확보를 위해 노력



장인화
포천신문조사위원회
위원장

포천신문 조사위원회는 포천신문의 취재보도활동을 측면에서 지원, 봉사

하는 기구로서 현재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천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포천시 구석구석마다 조사위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포천신문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물론 고발성 소식도 제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언론의 한 사회의 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울의 기능은 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거울이 없다면 자신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포천신문은 포천사회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만을 보여줍니다. 거울은 사물을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포천사회를 알기 위해서는 포천신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천신문이 1만명 유료독자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유료독자 1만명 시대를 열어가는데 힘을 모아주세요.

포천신문 조사위원으로서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소임을 다하며 모든 분야에서 포천신문 조사위원회가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포천지역 발전과 더불어 포천신문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역 代表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길



조대행
동남고교 교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축하합니다. 일일신 유일신하며 성장한 지 어느

새 4년. 이제는 의정부 포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에서, 정상의 언론기관으로 우뚝 선 <포천신문>의 위상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는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쌓아올린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의 빛나는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언론은 정의롭고 밝은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론과 직필의 의기로서 정확하고 바른 사실만을 전달하고 대쪽같은 자세로 굽힘 없는 의지를 견지해야 합니다. 포천이 시 승격과 더불어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책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바른 판단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그 중심에 민의의 대변자인 언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포천신문>은 시 승격과 함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거듭나게 될 이 지역의 여론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근간으로서 살아 움직이는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달하여 주민들의 숙원을 표면화시키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재창간 4월에 즈음하여, 우리 지역사회의 여론을 선도하는 <포천신문>이 되길 거듭 당부 드리며, 그동안 다져온 굳건한 초석을 바탕으로 지역 언론문화 창달의 중심에서 서서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을 기원합니다.

지역 最高 정론지로서의 역할



양근원
포천신문 학생
명예기자단장

는 지역신문과는 달리 경기북부지역에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신문이 경기북부의 정서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포천신문은 포천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만들고 포천사람들이 읽는 신문이기에 포천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언론이 가져야 하는 필수요소인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대외적으로 비취지는 포천신문의 이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0월에 한번씩 발행함으로 일간지가 갖는 보도의 신속성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포천신문이 여론을 선도하고 포천사람들의 참다운

문화를 만들고 가꾸어 가는데 포천신문의 사명감은 매우 크다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터넷이 급속히 발전한 가운데 포천신문은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포천신문을 만들어 포천을 사랑하는 네티즌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명예기자단 저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포천지역에 많은 언론매체가 범람하는 가운데서도 포천신문이 가장 많이 읽혀지는 신문이 되기 위해서 '나' 밖에 대한 관심과 '나' 안에 대한 관심을 적절히 다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를 떠난 신문은 더 이상 포천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을 축하드리며 경기북부지역의 횃불이 되길 기원합니다”

꽃샘종합식품 선물세트



꽃샘 6호
꽃샘유자차 1,000g 꽃대추차 1,000g



특선콩일세트
잡화꿀 2,200g



토종고가구 3호
토종꿀 1,200g



고려홍삼꿀세트
홍삼꿀 1,000g



꽃샘 1호
아카시아꿀 1,200g 잡화꿀 1,200g



꽃샘 5호
꽃샘유자차 1,000g+꽃대추차 1,000g+꽃샘유자차 1,000g



꽃샘 4호
영지꿀자차 600g+대추꿀자차 600g+솔잎꿀자차 600g



꽃샘기희세트
잡화꿀 1,000g 영지꿀자차 1,200g

1996년 10월 농림부장관표창
2000년 2월 서울특별시장표창
2001년 12월 삼성물산 우수업체 표창
2004년 3월 국제시장 표창



-2001년 11월
대한민국
석탑산업훈장
수훈-

